

# 기온 뚝… 유통업계 보온 마케팅 속도

겨울의류·난방용품 2주 빨리 매장 단장

난방용품 10% 겨울의류 5% 매출 늘어

최근 아침·저녁으로 급격히 내려간 기온 탓에 유통업계의 '겨울맞이'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특히 옷·겨울은 지난해보다 주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평년보다 일찍 겨울용품을 내놓는 '보온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가을정기세일 기간 가을의류와 함께 판매한 조겨의류는 지난해보다 8% 가량 매출이 신장하며 고객들의 빠른 '월동준비'를 실감케 했다. 꿈

은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경우 '늄시부츠'를 지난 9월 선보여 이미 20개 이상 판매했다. 이에 따라 평년보다 2주 빨리 스파프와 모피, 양콜부츠 등의 매장전시를 마쳤으며 코트 등 대표적 겨울 여성정장과 캐주얼, 남성정장 등도 매장전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겨울철 여성들의 인기아이템인 '어그부츠'와 스키복도 11월 초 입고를 마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난방용품을

비롯 겨울의류와 겨울용품 판매시기 를 예년에 비해 앞당겼다. 전기장판과 침구류 등은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먼저 매장에 선보였고, 패딩점퍼 등을 중심으로 한 겨울의류 상품도 판매를 2주나 먼저 시작했다.

난방용품과 겨울의류 매출도 일찌감치 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2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난방용품은 10%, 겨울의류는 5%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이른 추위가 오면서 브랜드 별로 겨울상품을 일찍 선보이고 있다"며 "보통 11월 초에나 선보이던 '어그부츠'도 2주 정도 앞당겨 내놓는 등 겨울 물량 및 매장진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할인점도 때이른 난방용품 판매에 동참했다. 이마트는 평년보다 열흘 가량 앞당겨 9월 중순부터 전기장판, 겨울침구류, 핫팩 등을 선보였고, 홈플러스도 2~3주 앞당겨 10월 초부터 겨울용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극세사 침구 등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난방기기 없이 보온력을 높일 수 있는 겨울침구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한 대형할인점 관계자는 "이달 들어 난방용품 매출이 지난해 보다 10% 증가했다"며 "늦어워 뒤에 온 반짝 추위에 기름값 상승으로, 고가의 전기매트와 온수매트보다 저가 난방용품 매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

OB 골든라거 1억병 돌파

오비맥주는 광주·호남지역민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지난 3월 24일 출시한 'OB 골든라거'가 출시 200여일만에 판매량 1억병을 돌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330ml 제품 기준으로 1억114만병이 판매됐다. 이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3800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성인 1인당 이 제품을 3병 가량 마신 셈이다.

광주·호남지역에서는 OB 골든라거를 '오비골드', '금메달', '금딱지'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즐겨 마시고 있다.



## ATM 인출·송금 수수료 50% 인하

타행도 인하…차상위 계층 등은 면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수수료가 상당폭 인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용카드 소액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종폭되면서 은행권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차단'을 벌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매번 수수료 카기는 은행들 알립니다' =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수수료 수입으로 3조7000억원의 매상을 올렸다. 이 가운데 약 9%인 3083억원이 이 같은 인출·송금수수료다.

특히 ATM과 창구에서 돈을 뽑거나 보내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여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인출·송금수수료 절반 이하로 낮

출 뜻 = 수수료가 약 절반 이하로 인하될 전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이 같은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영업시간 내 ATM을 이용할 경우 자행(같은 은행)은 면제하지만 타행(다른 은행)은 인출수수료(800~1000원)와 송금수수료(600~1000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시간 내 ATM 인출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400~500원과 300~500원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영업시간 내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 역시 최고 1500원(자행)과 600~3000원(타행)이지만 이 역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할 때도 인출·송금수수료가 500~600원과 최고 600원이었지만 250~300원과 최고 300원으로 각각 50% 낮춰진다.

◇면제 대상도 확대…뒤늦은 '눈치보기' 지적도 =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병행되는 방안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인출·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은행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몇몇 은행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농협 우윳값 7%만 인상… 1ℓ 2150원→2300원

서울우유가 오는 24일부터 우유제품 소비자가격을 9.5% 정도 일제히 올릴 예정인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유통비용개선을 통해 서울우유에서 만든 흰 우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이보다 낮은 7%만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는 현재 서울우유에서 만든 흰 우유 1ℓ를

농협은 19일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을 위해 자체 마진 폭을 줄여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흰 우유값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는 현재 서울우유에서 만든 흰 우유 1ℓ를

2150원에 팔고 있으나 24일부터는 2300원으로 150원 올려 판매한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유통마진을 줄여 서울우유 소비자가격을 7%만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연금복권

(제1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6조	7 1 2 1 5 7
	X 20년 2조	2 1 1 7 9 9
2등 100,000,000	6조	7 1 2 1 5 6
	6조	7 1 2 1 5 8
	2조	2 1 1 7 9 8
3등 10,000,000	각조	5 0 4 1 9 1
4등 1,000,000	각조	2 4 9 3 3
5등 200,000	각조	5 5 1 9
6등 2,000	각조	1 9
7등 1,000	각조	8 3
		2
		7

##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떠나고 벗겨진 묘, 동절기장을 거치며 봉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박지현의  
生活水平  
생활 레슨

### ■ 채소 말리기

모내기철 이후 시골 들판이 최고 '호황'이다. 연일 봄비인 소리가 요란하다. 물론 요즘이나 기계가 사람 땅을 대신하니 어울려 함께 하던 '새참'이면 '들밭'은 사라졌다. 하지만 쌀 수확의 기쁨만은 여전한지 무거운 나락 가마니를 나르면서도 모두 '싱글벙글'이다.

이웃 농부들 눈엔 '넓적다리'만 한 나랫벌에도 어김 없이 주렁주렁 결실이 맺혔다. 들판은 털이 말리고 무는 뱀이야 하고 가시오가피 줄기도 밀동까지 쌍 베어내야 한다. 베어낸 줄기는 겨우내 달여먹을 약차나 효소로 거듭난다. 키우던 허브 씨도 받아둬야 하고 호박이며 모과도 틈틈이 말려둬야 한다.

사실 미루다 겨우 해내는 나에 비하면 동네 부지런한 어르신들은 헛빛 한 조각도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다. 마땅 한 쪽에 무언가를 널려있기 마련이다. 그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질과 로즈마리를 씻어 말리고 소금 역시 잘 말린 다음 미서 드르륵 갈기만 하면 끝인데 향을 날리 가능이 좋다. 허브와 소금의 분량은 2대8 정도가 무난할 듯싶은데 어쨌든 취향대로 조작해보니 '말리기'조차도 사실은 그리 쉽지 않았다.

햇볕이 하루만 팽팽하지 않아도 스멀스멀 곰팡이가 피거나 늙죽해져 누렇게 둔색깔로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햇볕이 충분치 않아 심으면 전기장판이나 훈침대에 올렸더니 빛빠하고 고슬고슬 말랐다.

혹은 오븐을 이용해도 좋은데 사과나 고구마 같은 간식거리 만들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 사과칩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슬라이스나 칼로 0.5cm 정도로 얇게 썰고(두꺼우면 잘 안 먹임) 갈변을 막기 위해 레몬즙을 바른다. 레몬즙이 없다면 진한 설탕물에 살짝 담갔다 물기를 빼서 말리는데 바깥에 말릴 생각이라면 별래가 애지 않도록 맘을 덮어 이를 햇빛이면 적당하다. 바삭한 맛을 원한다면 오븐을 이용하면 좋다. 60도로 예열한 오븐에 1시간 20분정도 구웠다가 식

사과·고구마 레몬 바르면 갈변 막아  
햇볕 충분치 않으면 전기장판 이용



혀서 딱으면 완성인데 이 외에도 단감이나 쫀 고구마도 이처럼 만들어 두면 건강한 주전부리가 된다.

간식 장만뿐인가? 겨울 가며 다스러지기 전에 요리에 쓸 허브 이파리들도 따서 건사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따낸 것으로는 소금과 함께 허브 소금을 만든다. 마땅 한 쪽에 무언가를 널려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험해보니 이 간단해 보이는 '말리기'조차도 사실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일주일 만에 활금 들판은 사라졌다. 이제 빈 들판만 남았다. 그래서 빙기는 말했을까. 가을은 '조작으로 물드는 빙 뜨뜨' 그래서 '가을의 종말'이라고, 참고 안을 들여다본다. 말린 나물에 온갖 향아리를 그리고 내년 씨앗까지, 풍성하고 든든하다. 빙기는 물드는 빙은 빙을 만드는 빙과 차이가 있다. 빙은 빙을 만드는 빙과 차이가 있다.

〈담당객의 열두 달 실립법〉 저자 jazzcharts@hanmail.net



### 쇼핑후엔 따뜻한 커피 한잔

점 5층 스티克斯 전경.

광주신세계가 19일 백화점 5층과 이마트 광천점 지하 패션스트리트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2곳을 추가 개장했다. 사진은 새로 문을 연 백화점 5층 스티克斯 전경.

〈광주신세계 제공〉

**"웨딩, 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한민국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부페

객실 500석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침차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  
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훈집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